

# 拙翁 崔瀧 文學의 역사적 성격

鄭 景 柱\*

## 목 차

- |                 |               |
|-----------------|---------------|
| 1. 서 론          | 4. 졸옹의 사상과 문학 |
| 2. 졸옹의 생애와 사우집단 | 5. 결 론        |
| 3. 졸옹의 시대와 대응방식 |               |

## 1. 서 론

拙翁 崔瀧(1287-1340)은 14세기 전반기의 원나라 제국의 강력한 영향아래 놓여 있었던 고려조 문단을 대표하는 인물의 한 사람이다. 그는 원나라의 부용국으로 전락하였던 후기 고려조에서 원나라의 制科에 고려인으로서서는 두 번째로 급제하여 당대에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며, 安珦 白頭正 등에 이어서 李齊賢 安軸 李穀 등과 함께 당대의 새로운 학문 풍토로서 불교를 배척하고 신유학의 진흥에 일정한 공력을 기울인 학자이자, 또한 그의 恩門 金台鉉의 《東人文》에 이어 《東人之文四六》과 《三韓詩龜鑑》 등의 동국 시문 선집들을 편찬하여 후대에 끼쳐준 공이 있는 사람이다. 국문학사에 있어서는 특별히 〈狷山隱者傳〉 한 편이 이규보의 《白雲小說》에 이어서 自傳的 서술양식을 보여주었다는 것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拙翁에 대한 연구는 그간 예산은자전에 관심을 보인 소수의 논문 외에, 그의 《東人之文四六》과 《拙稿千白》에 대한 서지적 해설의 정도에 그치고 있어

---

\* 경성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서<sup>1)</sup> 아직 밝혀진 것이 적다.

대개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의 고려조 문학은 元帝國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권 하에 놓여 있었다는 시대적 분위기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다. 원나라의 고려조정에 대한 집요한 내정 간섭과 교묘한 원격 조종의 농간 속에 고려는 왕실 내부의 분열은 물론 사대부들도 권세의 추이에 따라 원나라의 주구가 되거나 왕실의 파당에 붙어 암투를 계속하였고, 그런 와중에서 민중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하였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의 고려조의 문학은 나말여초 이후 한 때 중단되었던 중원문화와의 교류를 재개하여 성리학의 지식을 흡수하고, 대몽항쟁기에 잠시 보였던 민족적 문화의식은 활발한 저술활동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문학을 접근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당대 사대부들이 元帝國 하의 동아시아 문명권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처하여 형성하게 되었던 문화-문명의식의 향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崔拙翁은 그런 점에서 매우 특이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먼저 졸옹의 행적을 가능한 대로 추적해 보고, 그의 문학행위 속에 나타난 그의 사상과 문학적 성향이 당대의 시대환경과 어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14세기 신흥사대부 문학의 한 특징을 지적하고자 한다.

## 2. 拙翁의 생애와 師友集團

졸옹의 생애는 高麗史 列傳<sup>2)</sup>과 稼亭 李穀이 찬한 墓誌<sup>3)</sup>에서 개괄적으로 얻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소략하므로 列傳과 墓誌를 중심으로 하여

1) 예산은 자전에 대하여는 呂壇東의 ‘崔拙翁과 貌山隱者傳고-한국소설문학의 새로운 계보수립을 위한 시론(杏亭李商憲先生回甲紀念論文集, 형설출판사 1968)’과 朴熙秉의 ‘고려후기 조선초의 인물전 연구(부산한문학연구 제2집, 부산한문학회 1987)’ 참조. 拙稿千百에 대하여는 任鍾淳의 ‘졸고천백해제(졸고천백, 아세아문화사 영인, 1972)’ 참조. 東人之文에 대하여는 尹炳泰의 ‘崔濯와 東人之文四六에 대하여(동양문화연구 제5집, 경북대 1978)’가 상세하다.

2) 《高麗史》列傳 卷第22 崔濯 참조

3) 《稼亭先生文集》卷第11 〈大元故將仕郎遼陽路蓋州判官高麗國正順大夫檢校成均館大司成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崔君墓誌〉 참조

여러가지 저술에서 발견되는 사실들을<sup>4)</sup>첨가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稼亭 李穀이 찬한 墓誌에 의하면 崔濯은 字가 彦明父 호를 拙翁이라고 했다. 이제현의 글에 의하면 壽翁이라는 字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sup>5)</sup> 그는 경주 사람으로 遠祖인 允順이 신라태수였다. 고려사 열전에는 文昌侯 崔致遠의 후예라고 하였고, 졸옹 자신도 儒仙後人이라고 자칭하였으며,<sup>6)</sup>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제현도 그가 죽은 뒤에 〈後儒仙歌〉를 지어 그를 애도하였다.

그러나 그의 가문은 중간에 영체하여 별로 떨치지는 못했던 것 같다. 曾祖는 慶州司兵으로 뒤에 軍部判書의 증직을 받았으며, 祖父도 檢校軍器監(從三品)으로서 版圖判書의 증직을 받았으며, 그의 부친대에 이르러 문학으로 이름이 있었다. 부친 伯倫은 충렬왕 2년(1276)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高麗王京儒學教授라는 원나라의 직함을 받았으며, 尚州通判 등의 관직을 거쳐 民部議郎에 이르러고 中顯大夫(從三品)의 직함을 받았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직함은 고려조 문벌의 형세로 보아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졸옹은 어려서 穎悟하여 9살에 이미 시에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그는 어린 시절인 10세에서 15, 6세까지의 元貞(1295-1296) 大德(1297-1306)연간에는 한때 부친이 通判로 나가 있었던 상주에서 생활하였다.<sup>7)</sup> 그러다가 충렬 28년, 16세 되던 해에 司馬試에 합격하여 進士가 되고 그 이듬해 癸卯年(1303)에 密直司事 金台鉉의 榜下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급제한 뒤에는 고려조 문과급제자들이 의례적으로 임용되던 成均館의 관직에 임용되었다. 이때 성균관의 從九品 관직인 學諭 자리의 궐원이 있어서 물망에 올랐으나 부친 伯倫이 재상 崔有滄에 대하여 불손한 말을 하였다 하여

4) 《高麗史》列傳과 稼亭이撰한 墓誌 외에 拙翁의 전기적 사실을 실고 있는 문헌으로 李齊賢의 역옹패설과 〈後儒仙歌〉, 權近의 《東賢事略》, 權輿撰《海東雜錄》의 崔濯條, 徐居正《東人詩話》, 曹伸의《設聞瑣錄》, 成俔의《慵齋叢話》 등이 유용하다.

5) 《益齋亂稿》卷3 張5에 招崔壽翁의 題로 다음 한 수의 시가 실려 있다. ‘琴書一茅屋 高臥樂幽獨 故人來不來 東隣酒熟熟.《海東雜錄》에는 崔濯의 一字가 壽翁이라 하였다.

6) 拙翁이 儒仙後人이라 자칭한 기록은 〈頭陀山看藏庵重營記〉에만 나타난다. 이 글이 學儒好佛한 李承休와 관련된 것이어서 혹 이러한 칭호를 자칭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7) 《拙稿千百》〈跋先書〉에 ‘元貞大德間 先生通判尚牧 邑人少所與許 予尚爲兒 記周老一人扶杖往來’라고 한 것이 보인다.

백륜은 孤蘭島로 유배되었다. 그가 이십일세 되던 해(1308) 선달 그믐날에 지은 〈二十一除夜〉의 시에 ‘二十寂無聞 誰稱丈夫兒 我今既云過 一名未曾磨’<sup>8)</sup> 라고 한 것을 보면 이때 일로 인하여 4년동안 관직에 임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藝文春秋檢閱의 관직을 받고 23세 되던 충선 2년(1309) 3월에 일시적으로 관직을 벗게 된 일이 있고<sup>9)</sup>, 다시 임용되어 長沙(高敞郡 茂長)監務로 左遷되어 삼년 이상을 머물러 있었다.<sup>10)</sup> 그 사이 사정이 분명하지 않지만은 충숙 庚申(1320)년 3월에는 藝文春秋館注簿(從七品)로 재직하고 있다가<sup>11)</sup> 동년 10월 長興庫使(從五品)로서 安軸, 李衍宗 등과 함께 원나라의 制科에 응거하는 기회를 얻어 원나라로 갔다.

이듬해 충숙 辛酉(1321) 3월에 원나라의 制科에 제21인으로 합격하여 文名을 떨치고 遼陽蓋州判官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冗務에 이기지 못한 그는 5개월만에 병을 칭탁하여 그 직을 버리고 고려로 돌아온다. 고려에서는 藝文 成均 典校 등 三館의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迎賓館에서 그를 영접 환대하였다. 고려로 돌아온 그는 藝文應教(正五品)의 벼슬을 받고 泰定 乙丑 丙寅(1325-1326) 연간까지 그 직에 있다가<sup>12)</sup> 그 뒤에 檢校成均大司成(正三品)에 이르게 되어 있다. 泰政 3년(1326)에 諸生에게 策問한 글이 있으므로 大司成도 아마 이 무렵의 관직일 것이다. 몇몇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관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충혜왕이 복위할 무렵(1330)에는 宮隸의 참소를 받아 한때 상당한 궁지에 몰렸던 것으로 생각된다.<sup>13)</sup> 이때 밀직사로 있던 崔安道の 도움을 받았으나 종내 풀리지 못하고, 충숙왕이 복위한 뒤에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그는 개성 남쪽 40리 지점에 있는 獅子山 아래의 사찰 전담을 빌어 경

8) 《東文選》卷4

9) 《東文選》卷15와 卷19에 〈己酉三月樞官後作〉의 제목으로 七律 및 五絶 시 각 일수가 있다.

10) 《東文選》卷20에 〈責任長沙監務〉, 〈到縣和人韻〉, 〈縣齋雪夜〉 등 七絶 세 수가 실려 있는데 그 중 〈縣齋雪夜〉의 시에 ‘三年竄逐病相切’이라 한 구절이 있다.

11) 延祐 庚申(1320) 3월에 쓴 〈海東耆老會序〉에 ‘藝文春秋館注簿崔某’로 나타난다.

12) 《拙稿千百》에는 乙丑 丙寅年 사이에 지은 〈國王與中書省請刷流民書〉 등 國書 3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自注로 ‘上三書皆藝文應教所製追錄’이라 하였다.

13) 庚辰 3월 27일에 歿한 〈崔大監墓誌〉에 ‘憶在十年時 見誣於一隸 堅 得幸於王者’라는 구절이 있다.《拙稿千百》 p. 146(아세아문화사 影印, 1972)

작하며 저술로 소일하다가 1340년에 54세의 수로 몰하였다. 그는 자녀가 없었고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인들의 부의로 겨우 장례를 치룰 수 있었다 한다.

고려사 열전에는 졸옹의 학문이 ‘不資師友’ 즉 스승의 전수나 벗으로부터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의 불우한 정치적 이력이나 독특한 행동으로 보면 상당히 그럴 법한 말이다. 그러나 그의 주변을 살펴보면 이러한 그의 학문과 행동들이 주변의 여러 인물들과 상당한 교유 속에 싹튼 것임을 볼 수 있다.

졸옹의 학문은 다른 기록이 없는 한 그의 家學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학문적 선배로서 動安居士 李承休(1224-1300)나 晦軒 安珣(1243-1309), 東菴 李瑱(1244-1321), 快軒 金台鉉(1261-1330)과 같은 인물들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졸옹은 이승휴의 季子 德裕와 교분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그 집에 출입하였고, 이승휴의 생시 거처를 암자로 창건한 頭陀山看藏庵의 기문을 지었다. 안향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모시를 짓기도 하였거니와, 益齋의 부친인 東菴에 대하여는 특별히 〈海東耆老會序〉에서 東菴老先生的 위촉으로 글을 짓는다고도 하였다.<sup>14)</sup> 快軒은 졸옹의 恩門이었으므로 快軒의 사후에 졸옹은 그의 묘지를 지었다.

졸옹의 학문적 동료로서 절친하게 지냈던 인물들은 彝齋 白頤正, 益齋 李齊賢(1287-1367), 竹溪 安軸(1287-1348), 稼正 李穀(1298-1351), 雪谷 鄭誦(1309-1345), 及菴 閔思平(1295-1359) 등 당대의 신유학을 대표하는 지식인들이었다.

졸옹이 지은 柏軒 金信의 墓誌에 ‘與彝齋竹軒益齋三先生交甚歡 每相會不以予爲狂鄙 引爲游 故得接從容焉’이라 하여 白頤正 金倫 李齊賢 등과 함께 교유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李穀에 대하여는 〈送李中父還朝序〉, 安軸에 대하여는 〈安當之關東錄後題〉라는 글이 각각 한편 씩 남아 있고, 鄭誦에 대하여는 〈送程仲父書狀官序〉가 있으며, 閔思平에 대하여는 민사평의 부친인 〈故密直宰相閔公行狀〉에 그 편모가 드러난다.

14) 《拙稿千百》 p. 8 〈海東耆老會序〉. ‘一日東菴老先生呼新進小生某與語之日 近會諸老 欲講洛社雙明故事 爾爲諸老序之’. 이 글은 졸옹이 춘추관주부로 있었던 延祐 庚申(1320)에 쓴 것이다.

이들 인물 중에서도 특히 이제현은 졸옹에게 각별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현과의 교분은 이들이 同庚 同鄉 出身이라는 점에서 각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東菴과의 관계에도 나타나거니와 익재의 親母인 永嘉郡夫人權氏의 墓誌銘도 익재의 부탁으로 졸옹이 지었다. 그 밖에도 졸옹은 〈李益齋後西征錄序〉라든지 〈上巳益齋席上得盛字詩〉 등의 글을 남겼다.

익재는 일찍이 安軸이 죽은 뒤에 다음과 같은 애도시를 지은 바 있다.

益齋少日相從 익재가 젊은 시절 날마다 상종하기는  
只有當之與拙翁 단지 당지와 졸옹이었는데  
四十年來俱物化 사십년 동안에 모두들 사라지고  
獨將哀淚灑西風 서너 바람에 홀로 눈물 뿌린다.<sup>15)</sup>

當之는 安軸의 字이며 拙翁은 崔濬의 號이다. 이를 보면 익재와 졸옹, 그리고 죽제 사이의 교분을 알만하다. 이들은 모두 同庚으로서 원나라에 가서 문명을 떨쳤던 인물들이다.

또한 익재는 졸옹이 죽고 난 뒤에 〈後儒仙歌〉를 지어 졸옹을 회상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졸옹의 생애와 그 성격에 대한 일단의 개괄적인 진술을 볼 수 있다.

孤雲雲孫雲錦腸 孤雲의 雲孫으로 비단같은 재능을 지녔고  
曼青嘲謔寬饒狂 東方朔의 해학에다 광태도 너그러웠네.  
賈勇中朝戰藝場 중국의 과거장에 용맹을 뽐내어서  
磊落夏宋伯仲行 중국의 장원 宋本과도 백중하였네.  
君胡爲乎思故鄉 군은 어찌하여 고향생각 하였던가  
燕南鬼怪方謔張 燕南의 귀것들이 바야흐로 횡행하여  
萬口相和誼蜩螗 온갖 말을 퍼트리며 소란했기 때문이었네.

風生四壁月照床 사방의 벽에 바람 새고 달은 책상 비추지만  
中夜起座歌虞唐 밤중에도 일어나서 요순시대를 노래하며  
病瘡老馬飮欲僵 병들고 늙은 말은 굶어서 쓰러질듯,  
呼童拂靴靴滿霜 아이 불러 안장 없으면 신에는 서리 가득한데  
平明敝推之何方 이른 아침 퇴고 하며 어디를 가시든가.  
竹軒爲啓琴書堂 竹軒이 그를 위해 琴書堂의 장계를 올려  
佳人更有白玉郎 가인은 다시금 白玉郎이 되었었네.  
愛直自合依南陽 곧음을 사랑함은 南陽에 의지함이 합당했고

珥筆視草平斗量	붓을 끼고 초고 볼적엔 품평이 공정했네.
翩然乘風歸帝傍	훨훨 바람타고 上帝 곁으로 돌아가서
手把斗柄把天槓	손에는 斗柄을 잡고 天槓을 떠낼 적에
豈億丹楹垂扶桑	丹楹을 扶桑에 드리울 줄 어찌 생각이나 하리
同庚古人髮蒼浪	같은 또래 고인은 머리로 회꽃회꽃
含糊模稜坐巖廊	아무런 말도 없이 높은 궁궐에 앉았다가
下視啞啞一笑長	아래 세상 굽어보며 하하하 길게 웃고
騎龍被髮遊鴻荒	용을 타고 머리 헤친 채 저 우주에 노닐겠지. <sup>16)</sup>

익재의 이 시는 戊戌年(1358), 즉 졸옹이 죽고 18년이 지난 뒤에 지은 것이다. 18년이 지나 자손도 없고 형제도 한미한 졸옹에 대하여 추념하게 된 것은 졸옹의 생애가 익재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익재는 졸옹의 성품을 ‘嘲謔 饒狂’이라고 하면서도 그의 곧은 성품을 ‘愛直’으로, 졸옹의 마음 속에 품은 뜻을 ‘虞唐’으로 표현하며, 그의 생활이 가난했음을 안타까워 하고 그의 문장에 대한 공정한 견해를 높이 평가하면서, 사적인 친분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졸옹이 원나라의 벼슬 개주판관을 5개월만에 내던지고 온 이유를 ‘燕南鬼怪’의 발호 때문이라고 한 것과, 중국에서 고려로 돌아와 벼슬을 얻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려 지내던 졸옹에게 竹軒 金倫이 장계를 올려 그를 관직에 임용하게 하였다는 한 구절은 다른 기록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이라 주목할 만하다. 燕南鬼怪는 말할 것도 없이 瀋陽黨을 말함이다. 원나라의 고려왕실 분열책동에서 비롯된 충선왕의 곤욕과 고려왕권을 넘보던 심양왕의 당파에 대하여 이들 졸옹과 익재의 사우들은 극력으로 저항하였고 그들의 노력으로 고려의 남은 국운이 원나라에 병합되지 아니하고 명맥을 버텨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익재의 이글에서 졸옹을 구태어 儒仙으로 표현한 것은 그 의도가 분명하다. 당나라 말의 혼란기의 당나라의 과거에 급제하고 어지러운 정국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고국 신라로 돌아와서도 혼란한 정국 속에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은둔의 길을 택하였던 최고운을 상기시켜 당대 지식인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의 어려움과, 졸옹의 처세가 피치못할 사정에서 나름대로 정당하였던 것임을 나타낸다 할 것이다.

16) 《益齋亂稿》卷4, 〈後儒仙歌爲崔拙翁作示及菴〉(成均館大 大同文化研究所 高麗名賢集 2 p. 270)

이러한 여러 인물들은 주지하듯 고려후기에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한 신흥 사대부가문의 중요한 인물들이다. 졸옹은 스스로〈狷山隱者傳〉에서 ‘吾所相往來者 皆善人 而其所不與者 多欲 得衆允難’이라 하여 그의 교유범위가 넓지 아니함을 말하면서도 또한 ‘此其所短 乃以爲長也’라고 함으로써 만큼 이들과의 교분은 학문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의 글에서는 종종 신유학의 지식에 입각한 성리학적 견해의 표명이나 퇴계한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에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졸옹은 그 자신의 뒤를 이어 원나라의 제과에 합격하였던 안축이나 이곡과 같이 관직에 있어서 현달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 개인의 성품이 세상과 합치되지 않아서라고 졸옹 자신은 말하였지만, 한편으로 그 자신의 믿는 바를 굽혀 관직에서의 현달을 취할 수 없다는 생각을 끝내 고집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 3. 졸옹의 시대와 대응방식

졸옹의 시대는 고려가 대원제국의 강력한 내정간섭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던 시기였다. 고려는 몽고와의 오랜 항쟁 끝에 고종 45년(1258) 柳璥 등이 崔誼를 제거하면서 몽고와 화친을 도모하여 이듬해에 태자 전이 원나라에 들어갔다 와서 등극한 뒤 몽고와의 강화가 급속도로 진척되었다. 그리하여 고려왕실은 개경으로 환도하여 원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일정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고려는 왕권과 내정에 있어서 원나라의 철저한 간섭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였다. 몽고는 대몽항쟁기간 중에 몽고에 항복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고종 38년(1251)부터 高麗軍民長官을 별도로 두고 이들을 통제하다가 雙城摠管府를 두더니 원종4년(1263)부터는 항복한 고려민을 심양에 거처 시키고 이들을 고려왕족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함으로써 고려왕실의 세력을 양분시키는 한편, 征東行省을 고려에 설치하고 원나라에서 파견된 遼魯花赤들로 하여금 고려국왕과 심양왕의 두 체제로 양분함으로써 왕실 내부의 결



속을 이간시키고, 한편으로 원나라에서 직접 임명하는 정동행성의 관료와 고려조정에서 임용하는 고려의 관료들을 양분시킴으로써 고려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고자 하였다. 이는 元史 高麗傳의 다음 내용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지원 6년(1340) 10월 추밀원에서 고려를 정벌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 馬亨이 또 말하였다. ‘이제 이미 분열의 사단이 있는데 다시 군사를 보내어 만일 이기지 못하면 우로 국가의 체면이 손상되고 아래로 사졸을 잃을 것이 오—’, 전추밀원경력 馬希驥도 말하였다. ‘지금의 고려는 옛적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합병하여 통일된 것이다. 대저 번진의 권력이 나뉘어지면 제어하기 쉽고 제후가 강성하면 신하삼기 어렵다. 저들의 군사와 백성의 많고 적음을 조사하여 둘로 분리시켜 그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며 권력이 대동하게 하여 스스로 견제가 되도록 한다면 좋은 계획을 서서히 도모할 것이요 또한 처분하기도 쉬울 것이다.’(至元六年十月 樞密院 議征高麗事。——馬亨又言今既有罅端 又遣兵伐之 萬一不勝 上損國威 下損士卒。——前樞密院經歷馬希驥亦言 今之高麗 乃古新羅百濟高句麗 三國併爲一 大抵藩鎮權分則易制 諸侯強盛則難臣 驗彼州城軍民之多寡 離而爲二 分治其國 使權侔勢等 自相維制則徐議良圖 亦易爲區處耳。)<sup>17)</sup>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나라의 강력한 영향아래 놓이게 된 고려왕실은 형식적으로는 원제국 아래 유일하게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받았지만 분할통치의 술책하에 원나라의 직접 통치조직인 遼魯花赤와 征東行省, 그리고 원나라 영향아래 있었던 瀋陽王, 그리고 고려조정이라는 세가지의 권력집단이 형성되어 암투하는 가운데 왕실이나 관료들의 항배가 무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틈바구니에 끼인 백성들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졸용이 고려의 과거에 등과할 무렵에는 원나라가 고려조정에 정동행성을 일시 폐지하였다가 다시 보구한 뒤로서, 충렬왕은 이들의 간섭으로 재위 24년(1298)에 일시 왕위를 태자인 충선왕에게 전위하였다가 6개월 만에 복위하는데, 이로부터 고려왕실은 前王과 新王의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게되고 이에 따라 臣僚들의 처신도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기였다. 충렬왕이 승하하고(1308) 일시 정국이 안정되는가 하더니 충선왕 5년(1313) 다시 태자인 충숙왕에게 전위하고 上王이 심양왕으로 물러났다가 심양왕의 지위를 조카 巖에게 전위하는(1316) 등으로 고려왕실은 그 권세가 삼분되어 암투가 치열하게 되

17) 《元史》列傳 高麗條

었다.

졸웅이 원나라의 制科에 합격한 이듬해인 충숙왕 9년(1322)에는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어 있었다. 元帝는 高麗國王印을 거두어 가고 고려의 관료들이 서로 파당을 나누어 심양왕 祚를 왕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상왕인 충선왕과 심양왕과 충숙왕 등 고려왕실은 세갈래로 대립하여 왕권을 놓고 각축하였다. 그 후 충숙왕 11년 전왕 충선왕이 승하하고 난 뒤에는 다시 충숙 17년(1329) 충혜왕에게 전위하고 충숙왕이 복위하고(1332) 충혜왕이 복위하는(1339) 등으로 고려의 왕실은 원나라의 조종에 의하여 산지사방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대에 고려조 관료들은 분열된 왕실의 세력간에 일정한 균형을 잡아가지 않으면 자신들의 지위가 위태했거니와, 고려왕후가 된 원나라 公主가 부식한 궁중세력과 원나라 조정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아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동행성 및 심양의 친원세력에 대하여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속에 고려의 정치란 일시적으로 왕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장악한 일부 권신들에 의하여 좌우되었으므로 국내의 민생이란 거의 돌볼 겨를이 없었거니와 일부 개혁에 뜻을 가진 인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미관발직에 그치거나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소외되기 마련이었다.

종교전백의 글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무심코 넘어가지 않고 이를 증언하고 있다. 졸웅이 찬한 몇몇 관료의 묘지를 보면 이런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때 德陵은 元朝에 入侍한지 오래였는데 전혀 귀국할 생각이 없었다. 나라 사람들이 황왕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皇慶 癸丑年에 공은 지금의 정승 化平君의 함께 元朝에 청하여 덕릉을 받들어 고국에 취임하게 하려고 했으나 덕릉의 뜻을 거슬러 화평군을 臨洮로 귀양가고 공은 파직되어 돌아왔다. …至 治 辛酉年에…덕릉이 서쪽 토번으로 가고 上王은 원조에 들어갔다 역류당 하고 동인들이 조정을 만들어 말을 퍼뜨리는데 거짓이 많았다. 그러나 공은 흔들리지 않아 사론이 옳게 여겼다.(是時 德陵入侍聖朝久 殊無東歸意 國人遑遑 罔知所出. 皇慶癸丑 公與今政丞化平君 告朝廷 欲奉德陵就國 忤德陵旨 化平君有臨洮之行 而公罷歸. …至治辛酉(1321)一德陵西往吐蕃 而上王入朝見留東人分傳 流言多有詭隨 而公守正不擾土論是之.)<sup>18)</sup>

18) 《拙稿千首》，大元故征東都鎮撫高麗國正大夫檢校僉議評理元公墓誌銘

이때 충렬왕은 조회하러 元都에 들어갔다. 무술년 복위 뒤로 국민들이 조정을 나누어서 국왕 부자의 정이 소통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은 그 사이를 주선하여 한결같이 공정하게 하니 사람들이 탄 말이 없었다. 정미년 봄에 이르러 덕룡이 인종황제를 받들어 내란을 평정하여 천하에 공이 높았는데 본국의 신하로 왕에게 탄 마음을 품은 자는 모두 제거하여 위로 二府와 아래로 여러 관료들에 이르기 까지 혹 죽이고 혹 유임시켜 모조리 바꾸고 정리하였다.(是時 忠烈朝親在都 自戊戌復位之後 國人分畺 至使父子之情有所不通 公周旋其間 一以公正 人無異言, 及丁未春 德陵奉仁宗 掃清內難 功高天下 而本國之臣 有懷二于王者 皆去之. 自上二府下逮庶僚 或誅或留 釐革且盡)<sup>19)</sup>

연우 말년에 德陵이 토번으로 가게 되고 지치 초년에 상왕이 원조에 들어가 억류당하자 나라안에 당론이 일어났다. 당시 왕의 처소에 있던 총재관으로서 공이 그 두번째였으나 아래자리에 있던 자가 도리어 국권을 쥐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들이 모두 막히기만 하였다. 그러나 끝내 나라를 그르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은 공 때문이었다.(延祐末 德陵有吐蕃之行 至治初 上王入朝見留 國中黨論起 時冢宰從于王所 而公首居 二府在下者 反執國權 不與一心 故事皆扞格. 然終不至誤國者 由有公也.)<sup>20)</sup>

다시 태위왕이 토번으로 가고 또 元都에 억류되는 일이 있었는데 반역의 무리들이 종사를 전복하려 도모하자 따랐던 여러 신하들도 모두 안면을 바꾸니 형세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공은 홀로 왕을 도와서 시종 다른 마음이 없으며 조정의 식자들이 칭송했다.(時 太尉王有吐蕃之行 又見留京師 傾危之徒 謀覆宗社 從行大臣 亦皆革面 勢至不測 公獨左右於王 終始無二心 朝廷識者稱之)<sup>21)</sup>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고려의 정치란 참으로 한심할 수 밖에 없었다. 과거를 거쳐 入仕한 인사가 재상의 지위에 오르는 것이 극히 드물었을 정도로 관직은 권문세가의 門蔭으로 독점되었으며 그들은 지방의 전지를 대규모로 점병하여 갔다. 원나라 조정과 심양왕 그리고 원나라 공주인 왕후의 궁중과 정동행성에 공여되는 막대한 재정은 물론 원나라로부터는 공식적으로 온갖 공물의 요구가 빈번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심한 것은 매해마다 관례적으로 있게 된 童女의 求索이었다. 당초에 왕실간의 혼인을 위하여 시작된 동녀구색의 일은 해가 살수록 심하여져서 몽고족의 군인들에게 보낼 수많은 고려 처녀들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런 일은 일반 민중에게 뿐만이 아니라 관료나

19) 《拙稿千百》, 金文正公墓誌

20) 上同

21) 《拙稿千百》, 有元故武德將軍西京等處水軍萬戶兼提調征東行中書省都鎮撫司事高麗宰相元公墓誌

심지어 왕실의 인사까지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졸옹의 壽寧翁主墓誌에는 그러한 동녀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해야 하는 고려조의 비참한 정경이 묘사되고 있다.

이에 앞서 동인의 자녀들을 해마다 서쪽으로 끌어모아 갔는데 비록 왕의 친척이 되는 귀인이라도 숨길 수가 없었다. 모자가 한번 이별하면 아득히 만날 기약이 없는지라 그 통한이 골수에 사무쳐 병들어 죽는 자가 한 둘이 아니었다. 천하에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천자가 어사의 말을 듣고 금지하라 하시니 온 나라 늙은이 젊은이가 밝은 세상 만났음을 기뻐하여 춤출 것이로되, 옹주는 이런 이런 시절까지 살지 못했음이 다만 한스럽도다. 오호라 슬픈지고.(先此 東人子女 被刮西去 無虛年 雖王親之貴 不得 匿 母子一離 杳無會期 痛入骨髓 至於感疾隕死者 非止一二 天下孰有至冤過是哉. 今天子 用御史言 制禁之. 一方老幼喜際仁明 不知手舞足蹈者 獨恨翁主未及而至於斯也. 嗚呼 悲哉.)<sup>22)</sup>

童女の 求索은 원종 15년(1274) 3월에 南宋 襄陽府 군인들의 妻室로 여자를 보내라는 원나라의 요구에 의해 結婚都監을 두면서부터 시작되어 원나라 순제(1333년 즉위)때 이르러 겨우 폐지되었지만 전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향과 부모를 등지고 끌려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참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한 고통의 역사를 졸옹은 痛入骨髓라고 표현한 것이다. 동시대인 金贊이 이를 미화하여 남긴 童女詩 두 편<sup>23)</sup>과는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해마다 정월을 元都에서 보내는 국왕의 왕래 경비와 원나라에서 고려로 파견된 遼魯花赤를 비롯한 원나라의 관료 사졸에 대한 賞賜, 그리고 궁중과 결탁된 사찰의 佛事に 공여하는 비용 등으로 국가의 재정은 탕진되어 갔고, 그런 중에서도 권력을 가진 권신들은 전토를 겸병하고 양민을 노비로 삼는 등 정치는 매우 어지러웠다. 졸옹이 과거 준비하던 학생들에게 문제로 낸 策問의 다음 한 구절은 이러한 실상을 반영한 것이다.

해마다 전토를 모두 개간하였으나 국고의 수입은 늘어나지 아니하고 인구는 점점 번성하나 백성들의 일정한 거처가 없으며 창고의 재물은 바닥나도 관리의 봉급은 부족하며 선비는 염치를 닦는 이가 드물고 가문마다 겸병하기를 다투며 풍속은 흐려지고 사람들은 원망스런 마음을 품어 비록 억울함이

22) 《拙稿千百》, 壽寧翁主金氏墓誌

23) 《東文選》卷18, 金贊의 童女詩 및 동 次韻 참조

있으나 펼 곳이 없다. 이로써 본다면 비록 능한자가 있어 힘써 행한다 허다  
라도 일조일석에 교정될 것 같지가 않다.(比年土田盡闢 而國無加入 生齒漸繁  
而民無定居 府竭其財 官不足俸 土罕修於廉恥 家爭效於兼井 俗歸混淆 人懷怨  
讟 雖有其冤 伸之無處 以是觀之 雖使能者力爲之 似不可朝夕矯正也.)<sup>24)</sup>

이러한 혼란속에서 특히 권력과 결탁한 권신의 집단이나 승려 내시들까지  
도 관원을 압도하고 민간에 대한 횡탈을 일삼았다. 가정의 표현대로 伺候에  
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강개한 직언을 서슴치 않았던 졸옹은 이러한 시  
대에 처하여 관직이 순탄할 수 없었다.

최해 자신도 1330년 그의 나이 마흔이 넘어서 벼슬에서 멀어져 있을 때에  
한 때 왕에게 총애를 받는 宮隸에게 모함을 당하여 자신이 직접 그곳에 찾  
아간 적이 있었으나 도리어 무안만 당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다.

내 성격이 게으르고 싸움질을 겁내는데 지난 십년전에 왕에게 총애받는 한  
종놈에게 모함을 당하여서는 나와 같이 게으른 자로서도 한번은 가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가서 보니 당대의 현사대부들이 모두들 그 객차에 와 있는데 문  
간이 저자와 같았다. 조금 있으려니 조금 있다 놈이 나오니 객들이 모두 뒤  
질세라 맞이하여 절하고 무릎을 꿇었다. 나는 선비가 이럴 수는 없다 하여  
예로써 보고자 하였더니 놈은 오만하게 쳐다보더니 그대로 말을 타고 돌아  
보지도 아니하고 가버렸다. 나는 한편 부끄럽고 한편은 한이 되어서 물려나  
오면서 '일이 생긴 것이 벌써 내 의도가 아니었으니 변명하지 않더라도 해  
될게 무엇이람.' 하고 생각하였다. 최밀직이 날마다 왕과 접촉하여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음이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이가 가서  
뵈고 따로 사죄라고 권하였다. 내 그 말을 따라 문간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  
려니 밀직이 멀리서 나를 여러사람들 중에서 발견하고는 특별히 자리에서  
내려와서 먼저 예를 차려 온 까닭을 물었다. 이에 곡절을 말하였더니 당시에  
놈의 세력이 한창이라 억제하기가 매우 힘이 들었으므로 마침내 발라지지  
못하고 말았다.(予性懶而怯於鬪. 憶在十年時 見誣於一隸豎 得幸於王者. 雖予  
之懶 不得不一往見 之則 時賢士大夫 咸在客次 其門如市. 少頃豎出 客延拜曲膝  
猶恐爲後. 予謂士不當如是 欲以禮相見 豎漫視之 遂上馬 不顧而去. 予且愧且  
恨而退日 事來既非意 雖無辨奚傷. 聞崔密直日接於王 言無不納 克著時譽 或有  
勸令謁而別白之. 予從而候於門牆之側 密直望見予於衆人之中 特降位次 先爲之  
禮 問所以來意. 乃曲爲之地. 時豎勢方熾而抑之甚力 故事終於不直而已.)<sup>25)</sup>

24) 《拙稿千百》, 問學業諸生策二道

25) 《拙稿千百》, 崔大監墓誌(同上 p. 146)

졸옹의 생애는 이러한 시대적 부조리에 대한 저항으로 일관되어 있다. 고려사의 열전이나 묘지에 표현된 恃才傲物이라거나 不善伺候라거나 또는 放蕩不羈하다는 것 등이 그것이었다. 여기에는 대개 세가지 사건이 거론된다. 하나는 과거에 급제할 당시부터 그는 충렬 충선 충숙왕조의 대단한 원신이었던 최유엄에 대하여 알력이 있었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최해 자신이 재능에 대한 강한 자부심으로 세상에 대하여 오만하였다는 것이며, 그 밖에 廣明寺에서의 使酒逸話가 전한다.

먼저 合浦萬戶 張瑄의 시를 割去한 사건이다. 고려사 열전의 기록에 최해의 性行을 恃才傲物이라 표현하고는 이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일찍이 동래현을 지나다가 해운대에 올라 합포만호 장선이 소나무에 시를 지어놓은 것을 보고는, '어허, 이 나무가 무슨 재앙이 있어 이런 모진 시를 만났는가' 하고는 깎아 없애버리고 흙으로 뭉개어 버렸다. 가다가 안동에 이르니 장선이 듣고서 노하여 맹장 서너 사람을 시켜 추적하게 했다. 그들이 종한사람을 붙잡아와서 형틀에 매어 대문 밖에 세워놓았다. 최해는 불래 죽령을 넘어 사운로 돌아왔는데 유림의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嘗過東萊縣 登海雲臺 見合浦萬戶張瑄題詩松樹曰 噫此樹何 厄遭此惡詩 遂割去之 塗以土. 行至安東瑄聞之 怒 命猛將三四 追之 得僕從一人歸 械立門外. 潛踰竹嶺還京 大爲儒林所笑.)<sup>26)</sup>

또 하나의 사건은 廣明寺의 壁書에 대한 것이었다.

최졸옹 해가 술에 취하여 미친 채 하였다. 일찍이 광명사를 지나는데 승도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는 모두 숨어버렸다. 졸옹은 장난으로 禪語를 지어 그 절의 벽에다 쓰기를, '居士가 어느날 객을 전송하느라 광명사를 지나가다 한 요사채에 들어가니 요사채 주자가 담을 넘어 달아나고 侍者만이 남아 있어서 거사가 시자를 길어차나 아래것들이 말이 없더라'고 하였다. 뒤에 어떤 이가 이를 총암에게 거론하여 물으니, 총암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 시자라면 당시에 곧 술을 사다 바쳐 거사더러 보게 했으리'라고 하였다.(崔拙翁使酒伴狂. 嘗過廣明寺 僧徒見其來皆遁翁爲禪語 題其壁云, 居士一日 因送客 過廣明寺 入一寮 寮主踰牆而走 唯侍者在 居士踢侍者三 下者無語. 後有人舉似空叢 叢曰 我若是侍者 當時便沽酒呈居士看.)<sup>27)</sup>

이러한 졸옹의 행동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거니와 후대의 사

26) 《高麗史》列傳 卷第22.

27) 《樸翁稗說》前集卷2(前揭書 p. 360)

람들에게도 모범으로 비치지는 않았을 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최해의 묘지에서 佯狂敢言이라 하였고, 고려사 열전에서도 가정의 墓誌 글을 인용하여 ‘放蕩敢言 喜說人善惡’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했다고 하였다. 졸옹 자신도 〈狷山隱者傳〉에서 자신의 이러한 성품을 스스로 말하여 ‘사람의 선악을 말하기를 좋아하여 무릇 귀로 들은 것을 입이 감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중시되지 못하고 천거되었다가도 곧 배척당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졸옹에 대한 몇가지 일화를 다만 그 개인의 기질적인 문제로 돌릴 수 만은 없다. 그의 행적이나 글을 살펴보면 거기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맥락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가령 장선과 관련된 일화는 장선이 종사품 벼슬의 武人이요 또 당대의 형세가 무인에게 대단한 권력이 있었던 시대라는 점을 생각하게 해 주거니와, 광명사 승려에 대한 일화도 당대의 권문세가와 결탁하여 방대한 전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찰의 권세를 감안한다면 평범하게 넘길 수 있는 대목은 아니다. 이러한 奇行은 곧 졸옹이라는 지식인이 당대의 시대환경을 대면하여 표출해 낸 일정한 자기의 표현방식일 것이라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 4. 졸옹의 사상과 문학

졸옹의 저술로 남아 전하는 것은 졸고천백의 文 43편과 동문선에 수록된 33편의 詩가 그 전부이다. 그가 편찬한 저술로 東人之文 15권이 일부 남아 전하지만, 《三韓詩龜鑑》은 그 完本이 전하지 아니한다. 다만 趙云乞의 《精選三韓詩龜鑑》이 崔瀝의 批點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이 최해의 삼한 시귀감을 저본으로 정선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남아있는 졸옹의 글은 대부분 그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감회와 당대의 세태를 개탄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신유학에 대한 일정한 식견과 불가의 병폐적 현상에 대한 비판, 그리고 원나라 치하의 권귀의 횡포와 곤고한 민생에 대한 시대 현실의 직절한 인식 등이다.

먼저 주자학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자. 졸옹은 당대의 고려조 신진관료들에게 유포되었던 주자학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그의 글 중에 익재의 글을 칭송하는 대목 가운데 朱子를 특별히 夫子로써 표장한 대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sup>28)</sup>

또한 그는 그보다 앞에 주자를 표장하여 고려의 국학을 진흥한 안향에 대하여 상당한 존경의 염을 나타내고 있다.

時當去聖欲從誰	성인의 시대는 멀어 누구를 따를 것인가
盡棄常經競好奇	일정한 법 마다하고 기이한 것만 다투는데
不是賢侯生命世	공께서 이 세상에 나시지 않으셨다면
寧教胄子復尊師	어떻게 자제를 가르쳐 다시금 스승 높였을까.
抽錢慮遠資無極	먼 생각으로 돈을 마련하니 가이 없이 쓰려니와
函丈功深進有爲	講席의 공은 깊어 진학에 유위하였도다.
配祀宜尼有公論	孔子에 配享하자는 공론이 있거나와
請先碑石勒斯詩	먼저 비석에다 이 시를 새기소서 <sup>29)</sup>

유학적 신념과 이러한 신념을 정치로 실현하여야 한다는 주자학적 인식은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아직 보편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실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들 속에 당대의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일단의 부패한 사회적 병폐에 대하여 일정한 비판적 시각이 견지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당대 현실에 대한 그의 비판적 시각을 살펴보자. 졸옹의 문학저술 가운데서 당대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대체로 두가지 부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나는 당대 권력층의 탐욕에 대한 비판이요 다른 하나는 당대 왕실의 비호 속에 흥성하였던 불가의 승려들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다. 특히 후자는 고려말기 불가비판논의의 첫장을 연 것이었다.

먼저 당대의 권력층의 탐욕에 대한 비판을 보여준 작품이다.

貯椒八百斛	호추 팔백 섬을 쌓아 뒀다고
千載笑其愚	천년토록 우매한 짓 웃음거리인데
伺如綠玉斗	어떠한가, 푸른 옥으로 만든 말로

28) 《拙稿千百》, 李益齋後西征錄序(전게서 p. 15). 晦菴朱夫子 嘗稱歐公…聯云 以詩言之 是第一等詩 以議論論之 是第一等議論

29) 《東文選》卷15. 在松山書院夏課次東菴追慕文成安珣所著韻



竟日量明珠 종일토록 명주를 헤아리다니.<sup>30)</sup>

연잎에 빗방울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운치있는 풍월을 읊조릴만 하다. 그러나 졸옹은 그것을 부호가의 한량없는 부에 대한 탐욕을 풍자하는 것으로 풀어썼다. 서거정은 동인시화에서 이 시에 청렴하지 못한 이를 나무라는 뜻(諷誚不廉之義)이 있다고<sup>31)</sup> 하였다. 졸옹 자신은 그의 이력에서 볼 수 있듯이 부귀영화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고 누누히 말하였는데 그것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我衣縑袍人輕裘 나는 누비옷 입고 사람들은 가벼운 털외투 입으며  
人居華屋我圭竇 사람들은 화려한 집에 살고 나는 오두막에 산다네.  
天翁賦與本不齊 하늘님이 부여한 바가 본디 같질 않음이라  
我不人嫌人我咎 나는 사람 개의치 않는데 사람은 나를 허물하누나.<sup>32)</sup>

다음으로 불가에 대한 비판이다. 졸옹의 불가에 대한 비판은 아직까지 불가이념 자체에 대한 강력한 비판으로까지 나아간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간혹 불가의 중지가 유가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대의 권력집단과 결탁하여 부패할 대로 부패한 승려들에 대하여 대단한 혐오감을 표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이 믿고 좇는 신념인 유학적 사상으로는 불가가 이단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다.

천하를 살펴보건데 부처 받드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배와 수레가 닿는 곳이면 어디서나 탑과 사찰이 들어서 있고, 그 무리들은 모두 권세를 딱딱 으르며 富를 마음대로 하고 사대부 보기를 종보듯 한다. 그러므로 우리 儒者로서는 취하지 않는 바이다. 이 어찌 부처의 허물이라. 무릇 부처는 不善을 행함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明心見性의 설을 보더라도 또한 우리 유학을 조술한 자인 듯하다. 달인과 군자로서 그 도를 음미하여 즐기면서 버리지 않는 이가 있는 것은 또한 가답이 있음이로다.(見天下奉佛太過 舟車所至 塔廟相望 其徒皆拊權擅富 蠱毒斯民 而奴視士夫 故爲吾儒所不取焉 是豈佛之過歟 夫佛好爲善 不好爲不善 就其明心見性之說而觀之 似亦祖吾儒而爲者 達人君子 有味其道 樂而不捨者 亦有以夫.)<sup>33)</sup>

30) 《東文選》卷19. 雨荷

31) 《東人詩話》卷下(趙鐘業編 韓國詩話叢編 p. 264, 동서문화원 1989)

32) 《東文選》卷6, 上元會浩齋得漏字

33) 《拙稿千百》, 頭陀山看藏庵重建記.(전게서 p. 12)

위의 글은 이승휴의 생시 거처를 암자로 개축하면서 쓴 것이기에 그 글이 상당히 무디다. 그럼에도 권력가와 결탁한 종교세력이 가진 폐해를 또렷히 지적하고 있다. 졸용의 불가 비판은 이와같이 그 현실적인 부패상을 지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금강산에 놀러가는 사람을 보내면서 준 글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산중에 암자는 해마다 백으로 증가하거니와 그 큰 사찰로는 보덕사, 표훈사, 장안사 등인데 모두 관가의 힘을 얻어 경영하고 수리하여 전각이 덩그렇게 산골짜기에 가득차서 단청이 찬란하여 사람의 눈을 현란하게 한다. 상주하는 경비와 재물로는 庫, 典, 寶와 같은 金庫가 있고 관청이 있는 곳의 마을 인근의 좋은 전답은 주군마다 내려 있다. 또한 강릉과 회양 두 지방의 조세로서 관가에 들어오는 것을 모두 산으로 가져가는데 비록 흉년이 되더라도 감면되지 않으며, 매양 사람을 보내어 해마다 의복, 양식, 기복, 소금 등의 물자를 지급하여 반드시 빠트림이 없도록 한다. 그 승려들이란 대개 역에서 도망한 종이거나 부역을 피한 백성인데 항상 천명 만명에 앉아서 먹여주기를 기다리면서도 한사람이라도 雪山에서와 같은 고행을 하여 득도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더 심한 것이 있다. 사람을 속여 피이기를 ‘한번 이 산을 보면 죽어서 惡道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위로 公卿으로부터 아래로 士庶人に 이르기까지 처자를 이끌고 다투어 예불하러 가서 영음이 열고 눈이 오는 추운 겨울이나 여름의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길이 막히며, 산에 놀러가는 이가 도로에 끊이지 않는다. 아울러 과부나 처녀들이 따라 가서 산 속에 머물며 잡자다가 추운이 때때로 들리지만 사람들은 꾀이하게 여기질 않는다. 왕의 측근이 왕명을 받들고 역마를 달려 향을 내리는 일이 있어 철마다 끊이질 않으니 관리들은 세력을 두려워하여 명을 기다리기에 분주하니 그 공백의 비용이 움직이면 만전이라. 산에 사는 백성들이 웅집하기에 피곤하여 ‘산이 어찌하여 다른 고을에 있지 않도’라고 하며 노하여 꾸짖는 자까지도 있다.(山中庵居 歲增且百 其大寺則 有報德表訓長安等寺 皆得官爲營葺 殿閣穹隆 彌滿山谷 金碧輝煌 眩驚人目 至如常住經費與財 有庫典寶 有官負郭良田 遍于州郡 又以江陵淮陽二道 年租入直下官 盡勒輸山雖值凶荒 未見蠲減 每遣使人 歲支衣糧油鹽之具 必視無闕 其僧大抵不隸逃其役 民避其徭 常有千万人 安坐待哺而未聞一人有如雪山勒修 而得成道者 復有甚者 誑誘人云 一路是山 死不墜惡道 上自公卿 下至士庶 携妻挈子 爭往體之 除永說五寒夏潦淫溢 路爲之沮 遊山之徒 絡繹於道 兼有寡婦處女 從而往者 信宿山中 醞釀時聞 人不乏怪 有近侍兩命馳驛降香 歲時不絕 而官吏畏勢 奔走侯命 供億之費 動以萬計 山居民困於應接 至有怒罵曰 山胡不在他境者.)<sup>34)</sup>

이 한편의 글을 읽으면 사찰과 승려라는 종교집단이 당대 고려조사회에서

34) 《拙稿千首》，送僧禪智遊金剛山序.(전거서 pp. 44-45)

가진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요컨대 졸옹은 사찰에 대한 막대한 재정의 지원이 낭비에 호를 뿐만이 아니라 지방행정을 마비시키고 지방의 민생을 피폐하게 하고 있다는 당시의 실정을 이 글로 나타낸 것이다. 사찰의 위세가 대단하고 왕가의 승불이 극에 달하였던 이 시기에 이런 정도의 발언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발언은 당대의 사회 실정에 대한 졸옹다운 개탄의 한 모습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졸옹의 불가사상 자체에 대한 비판은 다음 글에서 볼 수 있다.

내 일찌기 말하기를 ‘儒를 알고서 佛을 몰라도 부처되는데 지장이 없으나 佛을 알고 儒를 모르면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세상에 부처를 설법하는 자가 말하기를 부처가 되려면 먼저 親愛함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한다. 무릇 사람의 도리는 親親에서 근원한다. 親을 없애면 사람이 없을 터인데 부처될 자 누구인가. 이로써 부처를 구함은 알 수 없는 바이다.(予嘗謂知儒而不知佛 不害爲佛 知佛而不知儒 不能爲佛 而世之說佛者 曰 爲佛先須棄絕親愛 夫人道源於親親 滅親無人 誰爲佛者 以是求佛 竊所未喻.)<sup>35)</sup>

불가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한유의 글에서 영향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파를 추송하던 고려 당대의 문학풍토에서, 더구나 궁중이나 권귀세력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던 사찰과 승려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이만한 정도로 시작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고려의 사대부들 가운데 성리학의 지식을 흡수해 들어온 이들은 대부분 원나라에서 시행한 제과에 응시하러 간 젊은 지식인들이었다. 종래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漢唐儒學적인 학식만으로는 원나라의 당대의 학문풍토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당말 송대에 들어 일기 시작한 성리학의 학풍에 대한 일정한 식견은 원나라라는 세계제국 속에서 행세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인 새로운 지식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나라의 제과에 최초로 합격한 인물이 안향이요, 두번째로 급제한 이가 최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원나라의 지식인 사회에서 새로운 교양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성리학에 대한 일정한 식견을 지니게 되었던 결과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원나라의 제과에 합격함으로써 중세세계제국의 보편적 문화수준에 이르렀다는 자부심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35) 《拙稿千百》，送盤龍如大師序.(전서서 p. 17)

그러나 졸옹을 비롯한 당대의 고려조 지식인들이 그대로 원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대단하게 경도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들은 곳곳에서 고려조 문화의 우수성과 그들의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은 입에서 나와서 글을 이룬다. 중국사람의 학문은 그들이 가진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정신을 많이 허비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세상에 높은 재능을 가진 이는 앉은 자리에서 헤아릴 수 있다. 우리 동국 사람은 언어가 이미 중국과 달라서 자질이 명민하지 아니하고 백배 천배의 힘을 바치지 아니하면 학문에 어찌 성취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마음의 오묘함에 힘입어 천지 사방에 달통하여 터럭끝만한 차질도 없이 득의한 경지에 이르러서는 어찌 저들에게 굴복하겠으며 많이 양보하겠는가.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먼저 이러함을 알면 그만이다.(言出乎口 而成其文. 華人之學 因其固有而進之 不至多費精神 而其高世之才 可坐數也. 若五東人 言語既有華夷之別 天資苟非明銳 而致力千百 其於學也 胡得有成乎. 尚賴一心之妙 通乎天地四方 無毫末之差 至其得意 尚何自屈而多讓乎彼哉. 觀此書者 先知其如是而已.)<sup>36)</sup>

한문이란 언어는 한족의 언어이다. 원나라 제국의 치하에서는 원나라 세력권 안의 國際文語로서 역할하였던 언어이기도 하다. 언어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득의의 경지에 이르러서는 중국인에게도 양보할 것이 없다는 표현은 곧 고려 지식인의 문화적 자부심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그는 동국의 시문을 모아 동인지문과 삼한시귀감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고려의 동방문화가 원나라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제민족의 중세문화속에 가지는 일정한 지위를 정치하려는 작업이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졸옹의 문학관에 대하여 논하여 보자. 졸옹은 주지하듯 시문에 대한 일정한 식견을 갖춘 사람이다. 김종직도 靑丘風雅의 서문에서 꽤한 김태현과 졸옹, 그리고 조운홀의 시선집 가운데 졸옹의 저술이 가장 옳은 체제를 얻었다고 하였다.<sup>37)</sup> 그의 문학관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열마간의 언급에서 표현 적절함과 내용의 참신함이라는 균형잡힌 문학을 추구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몇번 읽어보니 詞와 議가 沈坑하다. 충의가 마음에 가득차 사물을 만나 드러났기 때문에 형세가 그러하지 않을 수 없음이요, 淫言 漫語가 한 구절도

36) 《拙稿千百》，東人之文序.(전계서 p. 102)

37) 金宗直 〈靑丘風雅序〉

없다. 懷古와 感事の 시에 이르러서도 의경이 미묘한 경지에 나아가 전배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 곳이 많다.(詞義沈尤 本好忠義充中 遇物而發 故勢有不得不然者. 其淫言漫語 蓋無一句 至其懷古感事 意又造微 爬著前輩痒處 多矣)<sup>38)</sup>

근자에 김무적의 문집을 읽어보니 그 문집에 관동기행의 글이 많았다. 나는 여기에 登臨의 시는 남김없이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였다. 이제 當之의 이 關東錄을 보니 詞와 義가 정묘하여 절로 일가를 이루었고 모두 김무적이 말하지 못한 것들이다. 내 또 책을 치며 감탄함이 오래이다.(近閱金無迹集 集多關東紀行 予謂登臨之賦 備極無餘. 今觀當之此錄 詞義精妙 自成一派 皆無迹所未道也. 予又拊卷歎賞者 久之)<sup>39)</sup>

두 글에서 모두 詞와 義의 양면을 논하였는데, 詞를 말함에는 ‘淫言漫語’가 없을 것을 요구하였고, 義를 말함에는 ‘意又造微’, ‘人所未道’를 말하였다. 곧 간결하면서 정밀한 표현과 전인들이 말하지 못한 새로운 경지의 의미를 내용으로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은 고려중기의 문인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新意나 鍊琢 등의 시문비평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졸옹은 그 안목에 있어서 양면을 각기 분별하여 실패면서도 詞義俱妙의 관점을 유지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균형적인 감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삼한시귀감이 가장 적절한 선집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졸옹의 개인사로 보면 그는 매우 불우한 문인이었다. 14세기 전반기의 시대상황 속에 고려문인들의 의식 속에는 일정한 정도의 문화의식이 자라나고 있는 있었다지만 당대의 정치상황 속에 막강한 원나라의 세력과 대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원나라나 분열된 왕실과 결탁한 권귀들의 횡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의한 방법이 특수한 개인으로는 없을 터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냉철한 조응을 비취낸 글이 〈狷山隱者傳〉이었다.

예산은자전은 졸옹이 자신을 가탁하여 저술한 託傳이다. 이 전은 拙稿千百의 배열순서로 보아 졸옹이 죽기 약 2년 전인 後至元 戊寅(1338) 여름에서

38) 《拙稿千百》, 李益齋序征錄後序.(전게서 p. 15)

39) 《拙稿千百》, 安當之關東錄後序.(전게서 p. 63)

그해 겨울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sup>40)</sup> 그 때문에 이 전은 졸옹 자신의 생애에 대한 반성이 해학적 기교로 숨겨져 있다. 일정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세상에 쓰이자 못한 자신의 처지를 ‘性不善於伺候 喜說人善惡’한 자신의 결점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한 뒤에, 만년에 자신을 獅子岬寺의 승려에게서 전답을 빌어 농장을 개설하여 지낸다고 하는 것이 그 대략의 내용이다.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을 철저히 객관적 대상으로 놓고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이러한 그의 행위에 대해 이 전의 마지막에서 스스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였다.

은자는 평소에 浮圖를 좋아하지 않았으나 마침내 그 佃戶가 된 것은 대개 과거에 가진 뜻이 어그러졌음을 自訟한 것이라고 한다.(隱者素不樂浮圖 而卒爲其佃戶 蓋訟夙志之爽 以自貶云)

불가를 싫어하면서 불가에 빌붙어 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것은 최해 자신의 개인적인 처지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곧 원나라 치하의 고려조정에서 사대부로서의 일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나라나 왕실의 유력한 권력자의 횡포를 미워하면서도 생존을 위해 굴종하지 않을 수 없었던 미력한 신흥사대부층의 고민을 대변하는 것이다. 평소에 지녔던 뜻이 올바른 유가적 수양을 거쳐 백성을 평화롭게 살게하는 至治主義에 있었겠지만 그러한 인상은 물론 일신의 安危까지도 돌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최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그와 같은 隱居自靖의 길 밖에 없었던 것이다.

## 5. 결 론

졸옹 최해는 14세기 전반기 동양의 세계제국 원나라의 강력한 통제아래

40) 《拙稿千首》은 全篇의 글이 모두 저술한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예산은자전은 戊寅 夏에 편집을 끝내고 지은 〈東人之文序〉 뒤에 있고, 또한 戊寅 10월에 죽은 李彦沖의 묘지인 〈故政堂文學李公墓誌〉의 앞에 놓여 있다. 고려시대의 묘지는 장례를 치를 적에 동시에 작성하여 묻었으며, 이언충의 장례가 동년 선달 丁酉에 있었다고 했으나 묘지는 그 이전에 지어진 것이다. 따라서 예산은자전의 찬술시기는 이 해 여름에서 겨울 사이이다.

놓여 있었던 고려조의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의 한 사람이다. 정치적으로는 동양제국이 몽고족의 강력한 통제 아래 들어가고, 문화적으로는 韓族의 종주적인 위치가 격하되는 대신으로 色目人의 진출이 두드러진 이 시대에 있어서, 고려인은 원나라의 지속적인 왕권분립책동 속에 그들 왕조의 독자성을 지키면서 중세적 세계문화의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고 문화적 긍지를 추구하여 갔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줄옹 최해는 한국문학사에 있어서 다음 몇가지 점에서 특징적인 인물이다.

줄옹은 안향 이진 김태현 등의 영향 아래 이세현, 안축, 이곡, 정포 등과 함께 당대에 원나라에 유교되어 있었던 신유학의 지식을 흡수하여 여말선초 성리학의 토대를 여는데 일정하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 중에서도 줄옹은 특히 불가의 병폐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개시함으로써 고려말 斥佛論의 단서를 열었다.

줄옹은 東人之文 三韓詩鑑 등의 저술활동을 통하여 고려인의 문학적 저작들을 일정한 안목으로 정리함으로써 동방문학이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준 사람이다. 그의 문학관은 고려조 당대의 일반적인 修辭 위주의 문학풍토 속에 詞義俱妙라는 중도적인 논법을 취하였으나 그 평가의 안목이 당대나 후대인들에게 비교적 공정하다는 평을 받았다.

줄옹은 개인사적으로 원나라의 制科에 오른 인물로서는 관직이 현달하지 못하였다. 그는 직언을 서슴치 않고 확신하는 바를 굽히지 않았으며, 또한 현달을 위하여 분주하지도 아니하였고, 奇行과 敢言으로 사람들의 오해와 미움을 사기도 하였다. 그가 현달하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단순한 개인의 기질적인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이러한 행위는 원나라의 간섭하에 극에 달한 권신들의 횡포와 궁중의 부패로 인한 당대 지식인의 시대에 대한 일종의 변형된 저항의 한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